

코스피 6000의 그림자... 반도체 쏠림에 '빚투'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66조7245억... 전체 41% 차지
양사 제외하면 코스피 4700대 수준
빚투 규모, 각각 49%·28% 늘어
증권사, 반도체 '매수' 신호 유지
반도체 투자 쏠림 경계 목소리도



신용거래 자금이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 /ChatGPT로 만든 이미지

A씨(34)는 지난 2일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당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을 3500만원 어치 샀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한 달도 안돼 45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러자 지난달 빚을 얻어 투자금액을 70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그는 투자 종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좁혔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다"며 "부동산 투자는 '시드머니'(종자돈)가 적어 엄두를 못 내고 주식 투자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뭉치듯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랠리의 속도만큼 뒤쳐지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

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도체 자금 쏠림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2066조7245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4995조5123억원)의 약 41%를 차지한다.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가 6226.05를 기록했을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지수는 4752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유사하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를 약 4700 수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빚투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3조43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27일(2조3065억원) 대비 약 49%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액만 1조13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1조6468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신용잔고가 2조2305억원으로 증가했다. 2월 27일(1조7358억원) 대비 약 28% 늘어나며 증가액은 약 4947억원

으로 나타났다.

빚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이달 1일과 14일부터 신용거래용자와 증권담보대출을 재개했다. KB증권도 신용용자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복원했다. 하나증권 역시 신용거래용자를 재개했다.

◆증권가 반도체 "사리"

개인 투자자 직장인 B(30)씨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를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B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다. B씨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진짜 고수는 지금쯤 팔지 않을까 싶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86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8%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35조원, SK하이닉스를 25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586조원으로 전년 대비 546% 급증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668%, SK하이닉스는 43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26만 원, 135만원으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두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외부 충격에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근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산업 편중 문제는 자본시장보다는 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가깝고, 반도체 외 새로운 성장 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가상계좌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저금리 대출·거래실적 확보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 유도해 자금 편취
부업·투자·중고거래서도 피해 발생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가상계좌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피해자를 넘어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9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물 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

또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나 "거래실적 확보"를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이 실제 금융회사나 상품을 언급할 경우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업·투자·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 피싱에서도 가상계좌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기는 피해 발

생 시 환급 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판매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명칭과 유사한 계좌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레버리지 투자 관리 강화

고령·초보 투자자 중심 위험고지
투자 적정성 점검 절차 체계화

신한투자증권은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초보 투자자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령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레버리지 투자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투자 적정성 점검 절차를 보다 체계화했다.

우선 서비스 등록 단계부터 실제 거래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휴 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웹(Web) 화면 대출 신청 및 신용거래 화면 내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해 투자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거래신청서, 신용거래설명서 내에 고령투자자 안내사항을 추가해 투자 경험, 연령,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한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초보투자자를 위한 교육 영상도 제작해 MTS 내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 영상에는 레버리지 투자 용어에 대한 쉬운 풀이와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예정이다.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점에서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투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고객 전담 상담센터인 신용대출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고객의 재무상황과 신용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복잡한 유동화증권 정보 한곳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참여기관 49곳, 유동화계획 9764건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2024년 1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e-SAFE'와 외부 공개 플랫폼인 'SEIBro'로 구성되며, 유동화증권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한다.

현재까지 시스템에는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 27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 기타 기관 18곳이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에 달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946건, 2025년 4771건, 2026년 3월까지 1047건이 등록됐다. 이 중 공시 대상인 등록 유동화는 각각 224건, 247건, 47건이며, 비등록 유동화는 3722건, 4524건, 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운영 강화는 법 개정 이후 확대된 정보공개 범위와 기존 시스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의무보유 내역 등 신규 데이터 수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등록자의 입력 정보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의무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확대하는 등 정보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생태환경 보호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교보증권, 셋강생태공원 환경 보호활동

씨드볼 제작·교란식물 퇴치 활동
교보증권은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생태환경 보호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심 속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씨드볼 만들기과 교란식물 퇴치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임직원들은 공원 내 생태 복원을 위한 씨드볼을 제작하며 식생 회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오래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도심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힘을 보탤다. /신하은 기자